

열린 의회,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



## 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년 1월 27일
담당부서	금천구의회 의회홍보팀
■ 사진 1 매      ■ 총 2 쪽	

# 금천구의회,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

- 금천구의회, 제259회 임시회 2월 3일~10일까지 8일간 진행
- 조례안 심사, 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



- 금천구의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,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.

금천구의회(의장 이인식)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,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.

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,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

을 예정이다.

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·개정안 18건과 동의안,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.

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▲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」(고영찬 의원) ▲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」(도병두 의원) ▲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도병두이인식 의원) ▲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(윤영희 의원) ▲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엄샛별 의원) ▲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(김용술 의원) 등이 있다.

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,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.